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5월의 은혜를 뒤로하고 밀린 일들과 새롭게 시작한 사역들로 바쁘게 지내온 6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 누렸던 여운이 짙게 남아 있으면서도 어느새 빠르게 우간다의 현실에 적응하는 6월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교 현장 이야기, 6월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 참되고 지혜롭게

2023년 6월 31일

- 📍 P.O. Box 11701 Kampala Uganda
- ✉ 이동해\_salt dh@gmail.com  
김은희\_saltkeh@gmail.com
- 🗣 이동해\_salt dh  
김은희\_saltkeh
- ☎ 이동해\_+256(0)774-605808  
김은희\_+256(0)784-239806
- 💡 후원금 관리\_서현교회 권정선 자매  
(010-5348-2824)



지난 5월 미국 방문을 통해서 감사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공부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 가정을 꾸린 부부도 있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두들 성경을 읽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돌아온 첫 주부터 줌으로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대부분 미국에 있는 청년이라 시차 때문에 저희는 새벽 2시에는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쉽지 않은 시간대이지만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성경'사역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우간다에서 장소와 시간은 달라도 함께 성경공부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튼튼한 체력과 탁월한 영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현지인 목회자를 위한 '어!성경' 사역도 했습니다. 그동안 생각은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신학교의 방학을 이용하여 15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한 장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에 구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일정에 하루 3번의 9시간 강의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해서 부담이 컸습니다. 솔직히 진행되는 동안 괜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4년만에 야외 견학을 갔습니다. 일 년에 단 하루 동물원과 놀이동산을 가는 일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올 해는 준비를 단단히해서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보는 순간부터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 버스라고는 하지만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한 의자에 두 세명씩 앉아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수영장도 간다는 말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수영복을 가져 왔습니다.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사들에게도 고마워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아프리카에 살지 않는데 말입니다. ♪



김은희 선교사는 2명의 교사와 함께 다음세대를 위한 성경 교육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마련한 이 세미나는 우간다의 다음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직접 센터를 만들고, 교재를 현지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임상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현지 교사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먹고 자며 발표하고 실제로 교육을 해 보는 세미나였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땅 재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더 많은 증거들을 가져오라는 판사의 말 한디로 10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3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이 없고, 허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7월을 또한 기대합니다.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미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어!성경 공부를 끝까지 잘 섬기고 감당하도록.
2. 계획하는 어!성경 사역을 통해서 진리인 말씀이 우간다에 잘 전파되도록.
3. 7월에는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4.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땅 관련 재판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 되도록
5. 선교사로서 쓰임 받는 모든 일에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시도록.
6. 강진이가 연구와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잘 감당하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알래스카에서 성경캠프로 섬기고 있는 강현이도 건강하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